

치솟기만 하는 국제유가

두바이유 등 일제히 급등 … WTI 배럴당 86.13달러 사상 최고

국제유가가 겨울철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 부족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사상 최초로 배럴당 86달러 선을 넘어섰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장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지난주 종가보다 2.44달러 오른 배럴당 86.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또 이날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12달러 오른 76.57달러선에 형성되며 사상 최고수준까지 치솟았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달 28일의 배럴당 76.56달러였다.

WTI는 장중에 배럴당 86.22달러까지 치솟아 1983년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5일 연속 상승했다.

WTI는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85달러 선을 돌파한데 이어 86달러 선도 넘어설 때 따라 배럴당 90달러 시대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이날 유가는 인플레를 감안한 가격 면에서도 지난 1981년 3월에 기록한 84.73달러(당시 가격 37.48달러를 현재 달러화 가치로 조정한 가격)의 역대 최고치를 넘어선 것이라고 불리웠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달 28일의 배럴당 76.56달러였다.

이날 유가 상승은 석유수출국기구가 국제적인 원유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 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아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고 쿠르드 반군 소탕을 둘러싼 터키와 이라크 간의 갈등 고조 등도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를 복합적으로 가중시킨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터키 정부는 의회에 쿠르드 반군 소탕을 위해 북부 이라크에 진격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 세계 3대 유전지대인 이곳의 정점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키웠다.

국제적인 원유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 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아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고 쿠르드 반군 소탕을 둘러싼 터키와 이라크 간의 갈등 고조 등도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를 복합적으로 가중시킨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터키 정부는 의회에 쿠르드 반군 소탕을 위해 북부 이라크에 진격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 세계 3대 유전지대인 이곳의 정점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키웠다.

이런 가운데 OPEC는 지난달 11월 1일부터 하루 50만 배럴을 증산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 OPEC 산유국들이 당초 예상보다 4분기에 하루 11만배럴을 덜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반면 4분기 원유 수요는 작년보다 하루 10만배럴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OPEC는 예상했다.

터키의 군사 공격 위험과 OPEC의 이런 예상은 겨울철 성수기를 앞두고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주 발표한 전주의 미국 원유재고가 예상 외로 감소한 상황에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고 달러화의 약세 역시 유가 강세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달러화의 약세를 감안할 때 원유 등 상품에 대한 투자 선호현상이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유가가 조만간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 내년에는 100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도 대선 앞으로

‘정치의 계절’ 경제단체들 잇단 정책 제시

대선을 두달여 앞둔 ‘정치의 계절’을 맞아 재계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계의 ‘대선 행보’는 주요 경제단체들의 핵심 정책 건의와 전략적인 규제완화 요구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대선판을 좌우할 각 정파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경제 단체들은 이들의 대선공약 수립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능한한 재계의 입장은 많이 반영하기 위해 뛰어 있는 모습이다. 16일 각 경제단체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만간 차기정부 정부정책과제인 ‘미래 한국비전’과 규제개혁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경련이 24일 내놓을 미래 한국비전은 대선을 앞두고 재계가 차기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망라했다. 이번 미래 한국비전의 핵심은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으로 정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18일 김영배 상근 부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건의서를 공식 발표하기로 하는 등 재계의 대선 행렬에 가세할 테세다. 경총의 정책건의는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계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선순환하는 노사관계 안정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정착 등 크게 세 가지 테마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는 빠르면 2010년대 초에 달성을 목표로 1조달러 시대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무역비전’을 만들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먹는 샘물’ 못믿겠다

총대장군군 등 수질기준 초과 12곳 행정처분

16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체 70곳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12곳(17%)과 시설관리를 잘못한 7곳(10%)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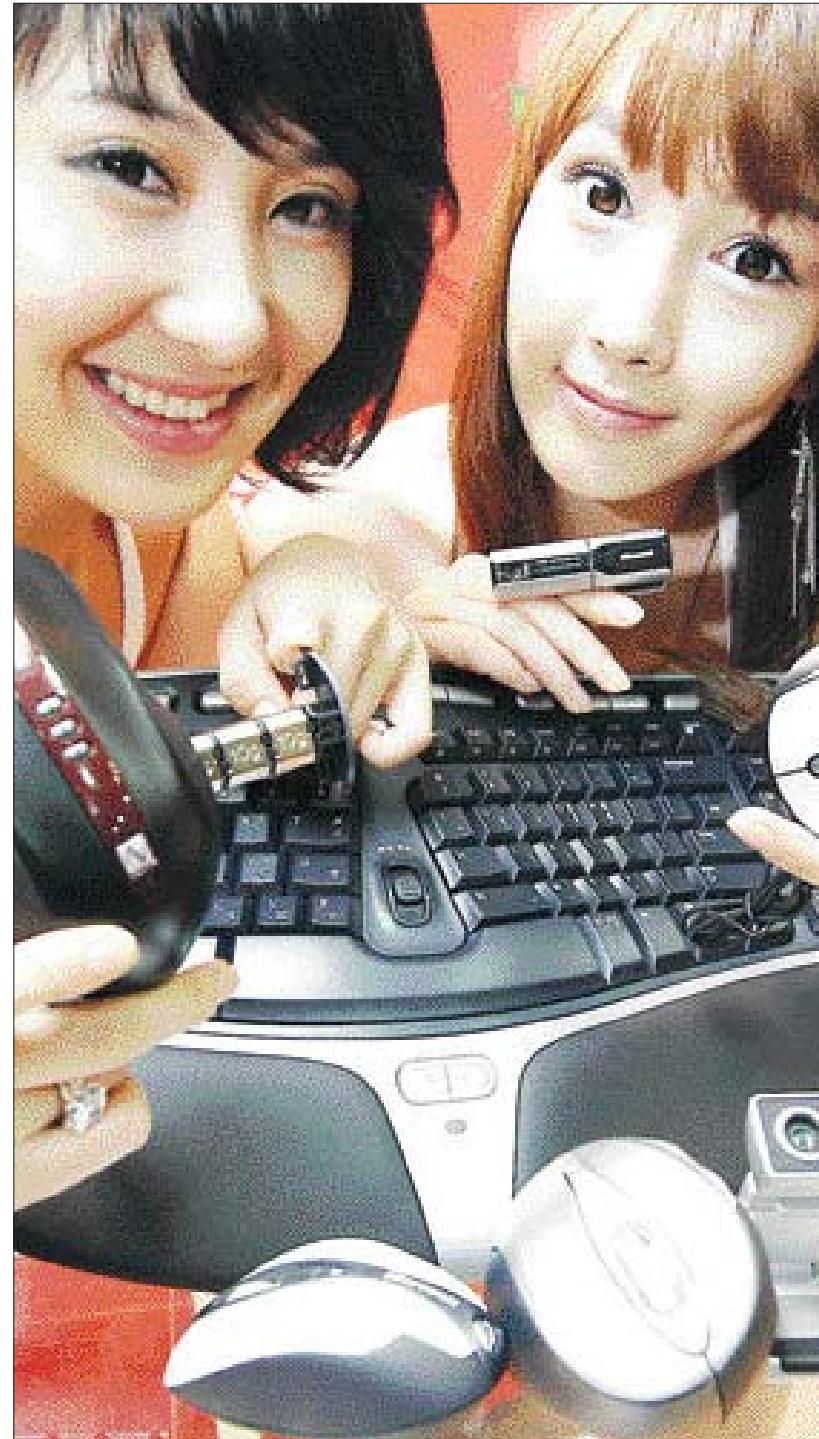
청수음료업체의 경우 생수를 만들기 전 원수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총대장군군이나 나와 330만원의 과징금과 해당제품 폐기 명령이 내려졌고, 창대통상(주)과 하이아트샘물의 원수에서 총대장군군이 검출됐다.

또 유명회사인 풀무원샘물(주)의 생수제품에서는 냄새가 검출됐고, 하이수와 퓨리스 제품은 탁도기준이 1.58NTU로 기준(1NTU)을 초과해 각각 2천25만9천원, 1천650만원의 과징금과 해당제품 폐기명령이 내려졌다.

㈜가평정전의 원수에서는 비소 0.135mg/l이 검출돼 기준(0.05mg/l)을 두 배 이상 초과, 영업점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자연음료의 원수에서는 불소 2.6mg/l(기준 2.0mg/l)이 나와 과징금 390만원을 물었다.

이밖에 ㈜가지산시원샘물, ㈜금천계르마늄, 미소음료(주), ㈜하이엠샘물, ㈜농협샘물의 경우 원수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경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 하드웨어 신제품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1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체험관’ 오픈과 함께 혁신적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마우스와 키보드, 웹캠 등 하드웨어 신제품 7종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기름 세금 104조원

작년 한해 교통세·특소세 명목 23조 5,000억 거둬

정부가 최근 5년간 거둔 유류 관련세금이 100조원을 넘어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대통령민주신당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세와 특소세·주행세·교육세·부가세 등 유류 관련세금은 모두 23조5천억원이 징수돼 2002년(17조8천억원)에 비해 31.9% 증가했다.

유류세 징수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2년 17조8천억원, 2003년 19조5천억원, 2004년 20조9천억원, 2005년 22조원, 2006년 23조5천억원 등으로 5년간 기름세금으로만 103조8천억원이 걷힌 셈이다.

정부는 이처럼 유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대해 “최근 유류가격 상승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국제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기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는 ‘주세’라고 설명하면서 유류세를 인하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재경부는 제출 자료에서 “유류가격이 주유소별로 자율화돼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보다는 가격결정 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등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 근원적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2006년 3·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유류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7%로 프랑스(67.3%), 영국(64.7%), 독일(63.1%)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스페인(55.5%), 일본(40.9%), 캐나다(29.5%) 등은 높다.

재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13위, 가격대비 세금비중은 14위로 중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2000시대…체감지수는 ‘썰렁’

상승종목 보다 하락종목 더 많아…개미들 손실 커

코스피지수가 올 초 1,400대에서 2,000대로 뛰어오르는 사상 초유의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작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상승장에서도 최근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많아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체감지수도 레벨한 설정이다.

16일 코스피지수는 29.63포인트(1.46%) 내린 2005.76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21.20포인트(2.60%) 급락한 792.12로 마감해 800선이 무너졌다.

이날도 하락한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621개, 코스닥시장은 801개로 상승종목의 4~5배에 달했

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894개 종목의 상장이후 주가 주이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사상 최고 주가(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은 강세장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저평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 IT업종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16일 52주(1년) 신저가를 기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는 우리 시장에서 갈수록 뚜렷해지는 현상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의 우량종목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업은 4개 종목은 신고가 종목이 하나도 없었으며 종이복재(13.8%), 전기전자(19.7%), 의료정밀(20%)은 신고가 비율이 매우 낮았

다. 이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세가 뚜렷한 ‘호황 업종’만 오르는 종목 슬립화 현상 때문으로 중국 수혜 업종인 기계·건설·화학·철강·해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업황이 좋지 않거나 개별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진 업종은 강세장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저평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 IT업종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16일 52주(1년) 신저가를 기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는 우리 시장에서 갈수록 뚜렷해지는 현상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의 우량종목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얼리티 플러스(주)는 10월 20일 1000원(1.4%) 상승한 70.50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1000원(1.4%) 상승한 70.50에 거래를 마친 신한은행은 10월 20일 1000원(1.4%) 상승한 70.50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1000원(1.4%) 상승한 70.50에 거래를 마친 신한은행은 10월 20일 1000원(1.4%) 상승한 70.50에 거래를 마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시장에 판매되는 라면속 건더기 채소 가운데는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완제품인 라면에 방사선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포장에 표시되지 않았다. 다만 감자 등 자연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표시는 2010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에 대해 ‘무방부제’ 등과 같이 별도로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에 처음부터 함유되지 않은 영양성분에 ‘무콜로스테롤’ 등과 같은 표현을 금지하고 ‘없음’